

8회 : 천연물질로써 모발 성장 증식 및 최신 연구 결과

기존의 자연적 탈모는 남성호르몬 과다분비로 인해 남성의 노화 현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각종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40대에 많이 일어나는 탈모현상이 30대 또는 20대로 바뀌면서 남녀 성별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20-30대 연령대에서는 환경적 오염과 직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시적 질병인 부분 탈모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심할 경우에는 모발뿐만 아니라 눈썹까지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최근 제주 연안에서 자생하는 해조류인 감태에서 발모 효과가 탁월한 엑콜 (ECKOL)계 신물질인 ‘에클로탄닌’을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탈모증 개선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감태는 폴리페놀 성분 가운데 희귀한 구조를 갖는 신물질이며, 표피와 진피층의 만성 염증의 발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진섭은 두피 모낭층이 탈모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연구하였으며, 모낭층은 일종의 기생충으로 모낭과 피지선에서 기생을 한다. 실험 대상자는 현재 탈모 관리를 받는 남, 녀를 상대로 연구를 하였으며 탈모자의 모낭층 감염도에서 탈모가 심할수록 모낭층의 감염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 결과로 모낭층감염은 탈모진행 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혜숙, 도주연은 자연요법을 이용한 탈모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천연물 복용, 천연 비누 세정, 아로마 오일도포 및 두피 경혈 마사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천연재료와 자연요법을 통한 탈모 개선을 알아보기 위해 인체에 무해하며 발모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물 재료로 탈모 방지 및 발모제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대조군은 미녹시딜로 하였으며, 실험 결과에서 두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모발수의 변화에서 실험군이 훨씬 많은 양의 모발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되어져 있다. 또한 모발의 굵기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현저히 굵기가 증가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화학약품인 미녹시딜에 비해 자연요법이 발모에 큰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김재환외 3명은 고려 홍삼의 탈모증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는 남성형 및 여성형 탈모증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24주 동안 이중 맹검 위약 비교 임상 시험을 시행한 결과 고려 홍삼 분말을 복용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발의 밀도와 굵기가 증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자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역시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고려 홍삼의 복용이 임상적으로 탈모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안규성의 1명은 산

삼배양근을 함유한 생약추출물이 탈모방지 및 육모 촉진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 40명의 탈모 환자를 선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 8주간 실험하였다. 실험은 모발의 밀도와 모발의 굵기, 환자의 만족도의 설문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발의 밀도에서 실험군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고 했으며, 모발의 굵기에서는 모발의 굵기가 증가하고 모발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산삼배양근을 함유한 생약추출물이 탈모 방지 및 육모 촉진에 미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안규성의 1명이 인용한 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탈모개선 생약재들은 만형자, 천궁, 백지, 당약, 감국, 측백 잎, 상백, 우엉뿌리, 은행잎, 백지인, 양하, 생솔 잎, 맥반석, 숯, 황토, 목단, 쌀겨, 홍삼, 인삼, 들국화, 고삼, 검은콩, 검은깨, 구기자, 오가피, 녹차, 옹지, 만병초, 누에, 단삼, 부자, 생강, 굴껍질, 오렌지 껍질, 레몬 껍질, 알로에, 향련초, 석창포, 마늘, 참깨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추출물들을 첨가하여 개발되고 있고 생약추출물을 이용한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에 관한 연구에서도 생약추출물을 도포하고 복용한 후 탈모수가 점차 줄어들고 탈모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상지추출물이 탈모개선에 영향에서 모밀도의 측정결과 점진적인 밀도가 증가함이 나타났고, 모발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점진적인 직경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보고했다. 이재순의 1명은 당귀와 감초 복합 한약추출물의 모발 성장 촉진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당귀와 감초 복합 한약추출물을 FDA 공인제품인 미녹시딜 3%와 육모촉진을 비교하였으며, 시료는 중국산 감초와 국산 당귀를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을 통해 육안적 관찰, 조직학적 변화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육안적 관찰에서 미녹시딜에 비해 모발성장이 약하나 용매도포군 보다 훨씬 모가 잘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모발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귀와 감초의 복합 한약추출물은 미녹시딜과 비교했을때 육안적 및 조직학적 관찰에서 약간 뒤떨어지지만 우수한 모발 성장 효과를 보였으며 모낭 성장기 IGF-1 발현량에서는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탈모 예방제로서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 연구원의 박혜윤의 3명은 검정콩, 밀, 쌀겨 추출물이 모발의 성장과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세포의 활성 측정과 인장 강도 측정, SAMBA 기기 측정을 한 결과 검은콩, 쌀겨, 밀 추출물은 모유두 및 마우스 중간엽 줄기세포의 증식 효과를 촉진함으로써 모발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 가지 추출물을 동시에 처리 했을 때 각각의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보다 상승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모발 재생 효능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탈모 환자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환경과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두피관련 및 탈모에 대한 관심에 폭이 넓어지고 인위적인 부작용이 많은 화학제품보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식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천연물들이 많다고 하여 단일 식품을 선호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더 큰 부작용을 가져 올 수가 있다. 탈모방지, 또는 탈모지연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하고 두피에 노폐물과 피지가 모공을 막지 못하게 적절한 두피케어를 통해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